

슬로건

자동차부품업계에 혁신적인 지원을!

- 한국자동차신문(KMN)과 함께 전진!!
-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와 동참!!
- ⇒ 우리 자동차업계 국제경쟁력 제고로 ~

한국자동차신문

KOREA MOTOR NEWSPAPER

소모성 유류인 방청액, 세척제 등 운할유 비용 지원
생산 및 시험 연구용 기계장비 비용지원

**자동차부품업체를 위한
순수 비영리 기관**

KMIR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주간 (제36호)

자동차 부품업체 후원 비영리 신문

주간신문 : 2013년 10월 3일 ~ 10월 9일

자동차 부품업체, 정부의 품질관련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자동차도 2,000만 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19,160,337 대로 올해 말에는 2,0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명당 한 명은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운전할 수 없는 미성년자와 노약자를 등을 제외하면 사실 국민 대다수가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에 따라 우리 자동차업계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 재정위기에대 150만대 이상을 수출하며 600억 달러 이상의 무역기록을 남겼다.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일면의 화려함과 달리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물론 1·2차 협력업체들은 완성차의 성장과 함께 많은 발전을 이루며 좋은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타 업계의 웬만한 대기업보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협력사가 있을 정도다. 하지만 3차, 4차로 내려갈수록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협력사들이 2~3년 전부터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많이 힘들어하며 품질 분야에서의 혹독한 심사와 그 심사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설비비 등의 관리 비용과 시간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심사를 위한 설비투자나 수개월씩 소요되는 접수시험·중공속시험 등을 모두 협력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에서 시행하는 여러 지원 사업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협력사들의 품질 관련 부담을 완화시키고, 품질향상을 위한 것이다. 영세한 협력사들에게 무엇보다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관련 여러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 기술개발 지원금, 발전협의회, 고용지원 등을 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지원책이 아닌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R&D(연구개발), 기술개발 등 간접적인 지원에만 치중하는 자동차 유관기관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는 자동차 부품협력사 지원 강화를 위해 최근 많은 유관기관들과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전국 테크노파크, 각 지자체, 한국산업기술평화원 등 많은 유관기관들이 부품업체의 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지원에 대한 의견만을 교환하였을 뿐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관기관들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지원을 뿌려주고 형식적인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 실태였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R&D, 즉 연구개발 부분에만 업체 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 R&D 자체가 문제 있다가 R&D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기술이 발전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유관기관들의 지원이 너



무 형식적이고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R&D나 기술개발 지원은 그 특성상 지원 대상이 너무나도 좁다. 우리 자동차업계에서 보면 이러한 R&D를 할 수 있는 곳은 완성차와 극소수의 1차 협력사 밖에 없다. 2차, 3차, 또 그 이하 영세 협력사들은 현재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요건에 맞추어 생산 물량을 감당하기도 벅차다. 그 협력 단계상 연구개발이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연구개발을 할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무시하고 극소수 부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를 어찌 제대로 된 지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래를 향하는 지원이 아닌 거꾸로 위를 향하는 지원만 하고 있으니 많은 영세업체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하고 있는 R&D 지원 사업은 형식적, 극소수 업체들을 위한 것

본지가 수차례 언급했듯 자동차부품업체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업체 모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한대로 R&D(연구개발) 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은 그 대상이 국한되며 형식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R&D는 앞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R&D를 위한 주변 기반이 확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기반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본 기관은 기존의 지원 사업인 '자동차 부품협력사 R&D 기반 구축 사업'을 정부와 코드를 맞춰서 시행하고자 한다. 영세한 협력사까지도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주변 인프라를 강화하여 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 즉, 생산 및 시험·연구용 기계장비 분야와 생산 제조공정 친환경 유류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실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기계장비 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장비 숙련도 교육으로 근로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생산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숙련도 교육으로 전문성 향상과 업무 흥미유발을 통한 퇴직감소와 고용유지 효

과까지 보일 전망이다.

친환경 유류 지원사업은 발암성의 유독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협력사들에게 친환경 수용성 유류의 제공과 함께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서 생산 제품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근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과 안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은 협력사들이 친환경 유류로 바꾸어 비용절감은 물론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지원사업의 높은 만족도를 주시여야..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 지원 사업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 즉, 생산 및 시험·연구용 기계장비 분야와 생산 제조공정 친환경 유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실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당연히, 업체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지를 받고 있다.

기계장비 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노후화 또는 비용 부담으로 검사받지 않던 많은 장비들을 검사받고 있으며, 장비 숙련도 교육으로 근로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생산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숙련도 교육은 전문성 향상과 업무 흥미유발을 통해 퇴직감소와 고용유지 효과까지 보이고 있다.

친환경 유류 지원사업은 발암성의 유독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협력사들에게 친환경 수용성 유류의 제공과 함께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서 생산 제품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근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과 안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은 협력사들이 친환경 유류로 바꾸어 비용절감은 물론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업체는 먼저 R&D 기반 구축이 되어야.. 이젠 정부에서 나설 때..

이러한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의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10년차를 맞이한다. 초기 수십 개 밖에 되지 않던 지원 협력사 수가 이제는 1,000개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운영이 힘들어 엄중 변경을 하는 업체가 있을 정도로 협력사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더욱 많은,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이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묵묵히 잘 달려왔다. 그러나 기관 혼자만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수천 개의 영세부품업체들을 도와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밑바닥이며 초석이다. 그들이 무너지면 우리 자동차산업도 발전할 수 없다. 아니 발전은커녕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동차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제1의 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이 어려워지면 다른 산업 또한 안전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전 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Contents

- ◆ 日 자동차, 해외 생산 늘어 우리 부품 찾는다.
- ◆ 현대·기아차, 글로벌 생산체계 완성 앞뒤
- ◆ 제천에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허브 구축
- ◆ 화진, 첨단 자동차 부품 생산 착수

2면

- ◆ 〈신차〉 쌍용자동차, '뉴 코란도 C'
- ◆ 〈자동차 역사〉 현대 '테라칸(Terracan)'
- ◆ 〈자동차 상식〉 귀경 후 '자동차 후유증' 이렇게 관리하세요.
- ◆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자동차 뿐 아니라 '자전거도 단속'

3면

- ◆ 보도 따로 없는 위험천만 이면도로 ... 교통사고 사망 57% 차지
- ◆ 예산 바닥 위기 "경비 15% 감축"
- ◆ 이산가족 상봉 연기, 나을 앞두고 또 가슴에 대못질
- ◆ 초중고생 2.2% '자살생각'...7.2%는 '관심심'

4면

- ◆ 〈기획특집〉 자동차업계의 방청,세척,절삭 문제는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가 책임지겠습니다
- ◆ 〈기획특집〉 자동차인정(KMIR) 마크 안내

5면

- ◆ 〈지식백과〉 달리는 전천후 집무실, '방탄차'
- ◆ 〈생활상식〉 식품첨가물의 위험성 -2편-
- ◆ 〈건강상식〉 날뛰는 일교차에 면역력도 똑... 감기 조심!

6면

- ◆ 〈여행〉 정읍,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 ◆ 〈문화행사〉 풍기 인삼축제
- ◆ 〈영화〉 강철이

7면

자동차 업계 뒤편 향상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와 한국자동차신문(KMN)이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신문 (KMN)
KOREA MOTOR NEWSPAPER



한국 자동차 산업 시험 연구 소
KOREA MOTOR INDUSTRY RESEARCH INSTITUTION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 전문적인 연구와 든든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본 연구소는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순수 비영리 기관입니다.

지원구분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규모	최대지원금액
소모성 유류 구매비용	국내 소재 자동차부품협력사	방청유, 세척제	10억원 한도 내 최대 30 %	3억원
검교정검사비용		생산 및 시험 측정장비	1천만원 한도 내 최대 40 %	400만원

이 어린이의 웃음과 같이...

한국자동차신문(KMN)과 함께 우리 자동차업계에 밝은 희망만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는 민간 자율 공익(비영리) 법인인

한국자동차신문(KMN)과 함께 우리 자동차업계에 밝은 희망만 피어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는 민간 자율 공익(비영리) 법인인



화진, 첨단 자동차부품 생산 착수



화진이 인쇄잉크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DIC사와 협력해 영천첨단부품 소재산업지구에 첨단 자동차부품공장을 건설한다. DIC는 화진의 2대 주주로, 1,000만 달러를 지분으로 화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공장은 화진이 중

설해서 이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 영천 공장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시설과 기능이 모두 이전된다.

IPE(금속 또는 화합물을 진공상태에서 가열·증발시켜 증발한 입자로 표면을 처리하는 기법) 부문이 가장 먼저 옮겨갈 것으로 보이는데, IPE는 내년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올 12월 말에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공장은 5만9,419㎡의 부지로, 기존 영천공장에 비해 생산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진은 최근 부지확보 공사를 하면서 '해외수주 물량 증가에 대비한다'는 목적도 기재했다. 현재 해외 글로벌 기업 3~4곳과 납품을 논의하고 있으며, 화진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15~20%다. 닛산·혼다 등 일본이 해외매출의 대부분이다.

화진은 또한 상해 곤산에 있는 공장을 올해 연말 이전하기 위해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올해 매출은 1,10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현대·기아차, 글로벌 생산체계 완성 앞뒀… 친환경 자동차 투자 확대



100년을 이어가는 기업, 현대·기아자동차가 지속 가능 경영을 통해 만들어 가려는 목표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두 회사의 세계 자동차 시장 판매 대수는 2002년 271만대에서 지난해 712만대로 늘었다. 올 4월엔 해외 누적 판매대수 5,000만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게 그룹 경영진의 생각이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통해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완성 단계에 이른 글로벌 생산체제를 바탕으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영을 하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자동차를 제값 받고 팔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 자동차 업계의 승패를 좌우할 차량용 정보기술(IT)과 친환경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지속 성장을 위해 현대·기아차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 축은 부품 업체와의 상생이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부품업체와 동반 해외 진출을 해왔다. 부품 업체와 함께 성장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는 다른 외국 완성차 업체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윈-윈하는 체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1992년 5억 달러 수준이었던 자동차부품 수출은 지난해 246억1000만 달러로 20년 새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300여개에 달하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의 평균 매출액도 지난해 2337억 원으로, 2011년(2113억 원)보다 10.6% 늘어났다. 현대차는 또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력난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부품 업체의 성장이 곧 완성차 업체의 성장"이라고 말했다.

日 자동차, 해외 생산 늘어 우리 부품 찾는다.



상으로 자동차부품 대일 수출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부품조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신흥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결제통화의 환율변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달러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신흥국 납품의 장점이다. 지난 1년간 원-엔 환율이 25.4%나 변동한 데 비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 폭은 절반수준인 10.2%에 그치고 있다.

KOTRA 나고야무역관이 바이어들과 접촉한 결과 일본 바이어의 신흥국 이전에 따른 국내 업체의 현지 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즈키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 서플라이어가 많지 않아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납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쓰비시자동차는 엔저로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조달을 통한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해외거점(태국, 러시아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업체들의 신흥국 현지 납품도 점진적으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고야 KAPP(Korea Auto Parts Park) 입주 기업인 C사는 말레이시아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는 엔진 핵심부품을 유력 완성차 업체의 현지 생산거점에 납품기로 합의했으며, IAD 전자 전장부품의 태국 현지 납품이 결정된 상태다.

나고야무역관 김현태 관장은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본사가 조달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흥국에서의 납품실적이 쌓이면 향후 일본 국내 납품 추진에 크게 유리하다"며 "9월 27일 나고야에서 개최예정인 신흥국 진출 상담회를 비롯해 일본 자동차 업계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을 둔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제천에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허브 구축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의 허브 역할을 할 관리동이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2 지방산업단지에 들어선다. 제천시는 올 연말까지 충북도비와 시비 등 25억4800만원을 들여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관리동을 신축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 연면적 1217.88㎡ 규모로 지어질 관리동은 입주기업 사무실 등 관리시설과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실험실, 휴게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관리

동 가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축 역할을 할 이 관리동은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거리 기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채택한 충북도는 2016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제천 제2 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출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국내의 여러 자동

차부품 관련 기업을 제천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한방 바이오 산업에 이은 핵심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년 말 현재 충북 지역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 수는 126개사로 전국(6435개사)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주·정원에 32개사, 진천·음성에 50개사, 충주·제천에 28개사가 있다.

교정성적서 제1편

교정 성적서, 이제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교정성적서는 우리가 KOLAS 성적서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나, ISO-ILAC 성적서, KRISS 성적서 등 무수한 성적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ISO 규정에 따라 장비와 인력 등 요건을 갖추고 인정된 소급성을 유지하면 자체적으로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심사원들은 심사 시에 KOLAS 성적서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KOLAS 성적서를 받기위해 수십 여일을 생산위한 제품검사 포기, 생산성 향상을 역행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각 기업체의 손실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심사 시, 각 업체의 ISO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소급성을 유지시킨 자체성적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자체성적서를 인정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 차



쌍용자동차, '뉴 코란도 C'

새로운 코란도C는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와 함께 '코란도 패밀리 룩'의 완성도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전면부는 블랙베일 프로텍션 헤드램프 및 LED 포지셔닝 램프, 크롬257 몰딩과 바디컬러 라인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라인의 에어 인테이크 그릴 등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변화를 줬다. 뒷모양도 새로운 리어 콤비램프에 뉴 코란도 C 정체성을 살린 C자형 라이트가이드를 적용하고 Korando C 레터링에 시선이 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이아몬드 커팅 공법으로 유려하게 다듬어 신규 디자인 된 18인치 휠을 적용했다.

아울러 뉴 코란도 C는 구동계통 최적화를 통해 Eco 모드 선택 시 기존 모델보다 8.4%쯤 연비가 좋아졌다. (2WD 기준 복합 12.8km/ℓ), M/T 모델은 동급 유일의 1등급 연비(2WD 기준 복합 17.2km/ℓ)를 기록했다.

자동변속기 모델에는 새롭게 Eco 모드와 Sport 모드를 선택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해 일반 주행 시 최적의 세팅으로 연비 주행을 가능한 Eco 모드를, 쾌적한 가속감을 느끼고 싶다면 Sport 모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엔진 마운팅 시스템 개선 및 서브프레임 강성 보강 등 전반적인 NVH 개선작업을 통해 최대 10% 이상의 진동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타이어 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를 신규 적용해 예방 안전성도 한층 높였다.

이 밖에도 쌍용차는 최신형 내비게이션, 고급 오디오 시스템 등 소비자 요구를 대폭 반영한 동급 최고수준의 다양한 첨단 편의품목을 적용해 상품가치를 극대화했다.

새 차는 트림을 3가지(세부 트림 6개)로 간소화시켜 구성의 이해를 높였다. 판매 가격은 트림 별로 ▲CVS(City Voyager Special) 2,071만원~2,226만원 ▲CVT(City Voyager Limited) 2,380만원~2,572만원 ▲CVX(City Voyager Executive) 2,722만원~2,872만원(각각 고급형~최고급형)이다.

쌍용자동차가 프리미엄 ULA '뉴코란도C'를 출시했다.

뉴 코란도 C(New Korando C)는 프리미엄 UIV(Urban Leisure Vehicle, 도시형 레저 차)가 개발 콘셉트다. 내외관 디자인을 단장하고,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비롯한 운전자 공간을 신차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최상의 상품성을 갖췄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뉴 코란도 C와 함께 떠나는 도심 속 레저 라이프를 뜻하는 '어반 어드벤처(Urban Adventure)'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정하고 '새로운 코란도 C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란 메인 카피를 통해 SUV 본연의 모습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이야기

귀경 후 '자동차 후유증' 이렇게 관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고향에서 쉴 틈 없는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 돌아왔을 것이다. 고향의 정을 듬뿍 담아 왔겠지만 장시간의 여행으로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시간 여행에 따른 피로는 비단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 오느라고 말 못하는 자동차들도 많이 피로를 느낄 것이다.

길게는 하루에 8~9시간 정도 쉬 없이 운행을 해야 했던 자동차들에게 후유증은 사실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장거리-장시간 운행 후 자동차 점검 관리 요령에 대해 공유해 보자.

1. 타이어 · 휠밸런싱먼트 · 속임쇼버 : 타이어 마모도, 공기압 확인, 표면 날카로운 물질 제거, 타이어 옆면 훼손시 즉시 교환
2. 브레이크 :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휠 드럼 등 점검

후 연분에 노출되었다면 부식을 막기 위해 깨끗하게 세척

3. 각종 오일 : 엔진오일이나 파워스티어링 오일 등의 누유 여부와 오일량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4. 냉각수 : 냉각수 양을 점검하고 냉각호스 자체의 균열이나 방열판과의 연결 부위 등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

5. 배터리 : 비포장길 주행 시 배터리 단자부나 케이스 고정부의 접촉 상태가 느슨해졌는지 점검하고 단자의 이물질은 제거 후 부식방지액을 도포

6. 전조등 · 와이퍼 · 워셔액 : 와이퍼 교환 및 워셔액 보충, 전구 점등 점검

7. 연료필터 : 경유차는 연료 필터 내에 수분이 있을 경우 시동일 걸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분제거제를 사용

8. 엔진벨트류 : 에어컨 사용 등으로 부하가 많은 엔진 타이밍 벨트, 팬 벨트 등 각종 벨트류의 갈라짐이나 핸들 조작 시 소리가 나는 지 확인

9. 공조장치 : 접차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 대비한 히터 점검

10. 차체 및 내외부 세차 : 바닷가나 비포장도로 운행 후 하부 세차와 함께 차량 표면의 벌레, 송진, 타르 자국을 제거하고 음식물을 치우는 등 세균번식을 막기 위해 실내 세차 실시

추석명절에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과 장시간을 함께 했던 자동차에게 휴식을 주고 점검과 관리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교통사고로부터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요령이 아닐까 싶다.

김준표 기자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자동차 뿐 아니라 '자전거도 단속'



내년부터 운전 중 DMB, 스마트폰 동영상 등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낸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과 같이 영상물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석 쪽에 설치된 것만 해당된다. 단 내비게이션은 적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DMB 시청, 조작하는 행위는 휴대폰 사용이나 만취(혈중 알코올 농도 0.1%) 운전 정도로 위험하다"며 "처벌 규정 신설로 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한길 기자

자동차 역사

현대 '테라칸(Terracan)'



현대 테라칸은 현대자동차에서 2001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생산한 정통 프레임 차체 타입의 대형 SUV이다. 차명인 테라칸은 '땅', '대지'를 뜻하는 테라(Terra)와 '왕', '황제를 의미하는 칸(Khan)의 합성어로, 대지를 지배하는 왕 또는 SUV의 왕을 상징한다. 현대자동차의 SUV 중 마지막으로 출시된 보다 온 프레임 구조 차종이다.

애초에는 겔로퍼의 후속 차종으로 개발되었으나, 겔로퍼의 위급 차종으로 출시되었다. 출시 당시에는 2.5ℓ 디젤 엔진과 3.5ℓ 가솔린 엔진 등 2가지 엔진과 4단 자동변속기와 5단 수동변속기 등 2가지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었다. 롬바디 특성상 겔로퍼보다 험지 주파능력이 떨어졌지만, 동급 경쟁자인 무쏘와 렉스턴에 비해 초반 가속속면에서 월등함을 보여줬다.

2001년 8월에는 2.9ℓ 디젤 엔진이 추가되었으며, 2002년 FIFA 월드컵을 기념하여 한정 판매의 스페셜 에디션 트림이 선보이기도 했다. 그 해 7월에는 알루미늄 휠과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이 변경된 2003년형이 출시되었고, 2003년에는 환경 규제에 인해서 2.5ℓ 디젤 엔진이 겔로퍼와 함께 단종되었다. 이때 2.9ℓ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이 165마력까지 상승했다. 2004년 6월에는 테라칸은 파워 플러스라는 서브 네임이 더해져서 3.5ℓ 가솔린 엔진은 단종되었고, 2.9ℓ 디젤 엔진의 최고 출력은 174마력까지 상승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10월에 현대자동차의 북미 시장 전략 차종인 베라크루즈의 출시로 현대자동차가 환경부의 배기가스 총량제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한동안 재고가 판매되다 2007년 3월에 단종되었다. 중국에서는 형통화타이 자동차 회사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 2003년부터 현지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생산, 판매하고 있다. 테라칸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는 수출되지 않았고, 주로 중국과 러시아, 유럽 등지에 수출되었다.

고현승 기자

주책정책 패러다임, 획기적으로 바꾸자

이슈4선단
본인사 연구위원(도시정책연구실)

주책 과잉공급과 저출산, 저성장으로 수요 감소
→ 양보다 질로, 공급에서 수요로, 마트에서 소프트로

주책정책 5대 공급과제

수요자 중심 공급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주택 공급 80% 이상
-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 주택 공급

추진주체 역할 재편

- 개발·개발·공급은
- 개발·개발·공급은
- 개발·개발·공급은

맞춤형 주거복지

- 신규주택 대안 마련
- 신규주택 대안 마련
- 신규주택 대안 마련

계획방식 전환

- 이민도 위주에서
- 이민도 위주에서
- 이민도 위주에서

재정확보 방안

- 국민연금 기금
- 국민연금 기금
- 국민연금 기금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한 눈에 보는 연구정보, 인포그래픽스

다양한 보고서를 한 장의 그래픽에 담았습니다.

GRI 인포그래픽스는 홈페이지(www.gri.kr)에서 메일링 신청이 가능합니다.

GRI 경기개발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보도 따로 없는 위험천만 이면도로 ... 교통사고 사망 57% 차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 사고 사망률 1위(2010년 기준) 국가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114명, 세계 15위 경제대국의 어두운 그림자다. 지난해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5392명 중 57.4%인 3093명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9m미만의 생활도로에서 희생됐다. 고속도로나 넓은 도로보다 집 주변의 좁은 도로가 더 위험한 게 우리 현실이다.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택가 길로 택배차량 한 대가 '부릉' 소리를 내며 달려 들어왔다. 보도가 따로 없는 길을 건너던 행인 서너 명은 황급히 길 가장자리로 피했다. 아이 손을 잡고 걸던 한 여성은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길 좌우를 걸어보니 여덟 걸음(5~6m 정도) 남짓했다. 차 두 대가 교차해서 지나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 지난해 12월 이 길에선 70대 노인이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승합차가 열 골목길에서 나오는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이다. 세 아이를 키우는 선숙영(40·여)씨는 "아이들이 동네에 나가 논다고 하면 불안해서 쉽게 허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고 지점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는 월정초등학교가 있다. 학교 시간이 되자 많은 아이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학교 뒤편으로 향했다. 학교 담벼락을 따라 설치된 10m가량의 보도블록 구

간이 끝나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사라졌다. 폭 6m 가량의 골목길은 뛰어가는 아이들과 쉼 없이 들어오는 차량으로 뒤범벅이 됐다. 아홉 살 딸을 마중 나왔다는 최지은(40·여)씨는 "골목길 양쪽 끝이 차도와 연결돼 양방향에서 차가 들어온다. 하프길에 아이들이 뛰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는 1767건이다. 이 중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폭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413건으로 80%에 이른다. 강서구는 특별시와 6대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생활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전국 평균(54.8%)은 물론 서울 평균(45.6%)을 크게 웃돈다.

강서구의 폭 9m 미만 도로 교통사고 비율은 2010년 63.9%에서 2011년 79%로 상승하는 추세다. 사망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강서구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5명인데 이 중 21명이 폭 9m 이하의 생활도로에서 사망했다. 황정환 강서구청 도로과장은 "재개발을 하면 도로 정비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강서구의 많은 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재개발이 어렵다"며 "당장 도로를 넓힐 수는 없는 일이라 유지·관리를 하면서 스쿨존 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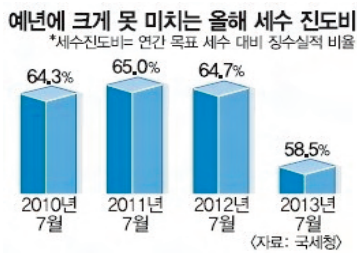
부산 금정구(77.5%)와 해운대구(67.6%)의 생활도로 교통사고 비율이 높았다. 서울 양천구도 지난해 교통사고의 62.3%가 생활도로에서 일어났다. 양천구는 전체 도로 중 폭 12m 미만의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88%)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도농(都農) 복합시인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81명 중 63명(77.8%)이 폭 9m 미만의 생활도로와 지방도로에서 희생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통합창원시가 9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폭 9m 이하의 좁은 도로의 사망사고가 많았던 곳은 화성시였다. 지역이 넓은 데다 최근 동탄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농촌지역 도로로 대형 화물차의 운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화성시 측의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정책실 실험관 수석연구원은 "도시는 일반도로에서 생활도로로 진입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농촌에서는 갓길에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설명했다.

집 주변의 좁은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만 주거지 생활도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활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 입장에서 주거지 도로환경 개선에 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집 주변에 차를 세우다 보니 생활도로에 차와 사람이 뒤엉키게 됐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은 폭이 좁은 생활도로에서 차와 보행자 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간선도로에서 차량 대 차량 사고가 날 때는 사망률이 높지 않지만 좁은 집 주변 도로를 걸어가면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할 가능성은 큰 후진국인 유형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바닥 위기 "경비 15% 감축"



정부의 추산만으로도 올해 최대 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기본경비 15% 절감' 등 지침을 내려 보내자 부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악의 예산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취한 조치이지만 일선 부처들은 더 이상 조일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 4분기 예산에 대해 기본경비의 15%를 삭감하고 미집행 사업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 세출을 절감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 보냈다. 기본경비는 출장비, 공공요금, 급식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체 규모가 올해 정부예산(342조원)의 0.7%인 2조 3800억 원에 이른다. 4분기 기본경비 중 15%를 삭감하면 9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불필요한 4분기 사업예산도 최대한 줄이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가 사업 예산을 줄이면 불용예산(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정사업이 중지됨으로써 지출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비)이 늘어난다. 회계상 '남는 돈'인 불용예산은 정부 적자의 보전에 쓰인다.

한 사회정책 부처의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반대로 세입 추계에 지출을 맞추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적는데 형편에 따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각 부처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지출 절감이 충분히 가능한 데도 기존 논리에만 매달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초중고생 2.2% '자살생각'... 7.2%는 '관심군'

초중고생의 7.2%가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가 있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2.2%는 자살을 생각하는 등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5~7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 211만9천962명을 상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IS·NEIS) 온라인 및 서면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한 결과 7.2%인 15만2천640명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자살을 생각하는 등 위험 수준이 높아 전문기관에 우선 의뢰할 필요가 있는 '우선관리군'은 2.2%인 4만6천104명이었다.

'관심군'은 초등학교생이 3만685명(3.4%), 중학생이 6만5천840명(11.0%), 고교생이 5만6천115명

(9.0%)로, 중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관리군'도 초등생은 0.7%, 중학생은 3.5%, 고교생은 3.0%로 중학생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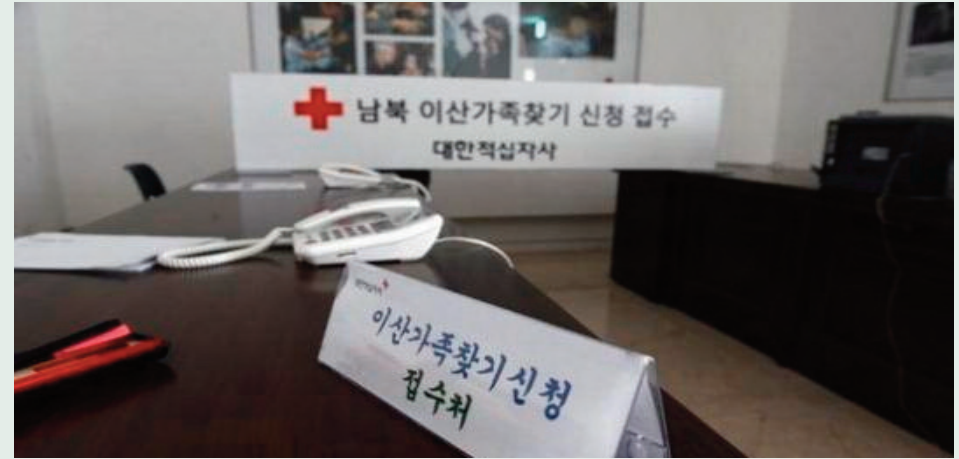
성별 관심군은 여학생이 7.6%인 7만7천명, 남학생이 6.8%인 7만4천명으로 여학생의 관심군 비율이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8.4%), 대전(8.3%), 강원(8.1%), 강원(8.1%), 충남(8.1%) 등에서 관심군 비율이 높았다. 학생 자살사건으로 전국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구는 관심군 비율이 4.5%로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부는 이번 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내 상담을 하고, 추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지역 내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철호 기자

이산가족 상봉 연기, 나흘 앞두고 또 가슴에 대못질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갑자기 행사 연기를 통보하자 기대에 부풀어 있던 남측의 상봉 대상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북한의 반인륜적 처사를 규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의 미숙한 대책정책을 질타했다. 이산가족의 사랑과 고통화로 부모나 형제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어 상봉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의 강능환(92) 할아버지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헤어질 당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상봉이 연기돼서 말할 수 없이 착잡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측 상봉 대상자 가운데 최고령자로 이반에 여동생 둘과 조카를 만날 예정이었던 김성운(95) 할머니의 아들 고경성(65)씨는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시작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봉 신청을 해 이번에도 대상자가 됐다"면서 "북측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 언제 상봉이 재개될지도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씨는 "100세를 바라보는 어머니 생전에 꼭 상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대책 정책이 미숙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인천 중구에 사는 백관수(90) 할아버지는 "북한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자꾸만 북한을 나쁘게 몰아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번 정부에서 가족들을 만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나도 반공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이식이 외위 문제를 자꾸만 북한과 연관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도 상봉 대상자로 선정돼 북한의 가족을 만날 예정이던 90대 이산가족이 별세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96명 중 한 명인 김영준(91)씨가 지난 19일 오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도주의 사안은 금강산관광의 종속변수가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 연기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봉 행사를 이용하려 한 북한의 속셈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뜻이다.

'원칙 있는 남북관계'는 박근혜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표방한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다. 상호 신뢰에 기초해 정치적 상황과 경제협력, 인도주의 이슈를 분리 대응하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선(先) 이산상봉·후(後) 금강산 회담'이란 투트랙 접근을 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은 다른 어떤 대북 의제와도 1대1 매칭이 불가능한 사안인데도 북측은 또 다시 정치적 이유로 대화 국면을 깨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먼저 신뢰를 저버린 만큼 상봉 무산의 책임을 북측에 넘기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평통 발표 5시간 만에 나온 2쪽 분량의 통일부 대변인 성명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정부 입장이 그대로 묻어났다. 성명의 격은 낮았으나 내용 대부분은 "반인륜적 행위" 등 원칙적 용어를 써가며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과 향후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는 수사로 채워졌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상봉 행사를 연기하며 이식이 사체를 거론한 의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성명은 "우리의 한법을 무시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마저 남북관계와 연결시키는 북측의 의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산가족 행사와 전혀 무관한 남북 내부 문제를 들먹인 점만 봐도 상봉 무산의 책임 소재가 북측에 있다는 것이다.

추가 협상 가능성 등 회로를 열어놓지 않은 정부의 대응은 일관된 원칙을 지켜온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가장 확실한 예로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단도 편세를 불사하며 7차 회담까지 가는 마라톤협상 끝에 통째로 개성, 공단 국제화 등 최근 수년간 북측과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상당수 의제를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이산 상봉 무기 연기 상황에 관계없이 이번 주부터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등 정상화에 한층 속도를 낼 예정이다.

통일부 전직 고위관료는 "개성공단 정상화는 정치·경제·분리 원칙 아래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갔다는 현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적용된 사례"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원칙적인 자세가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을 이끈 유일한 요인이 아닌 만큼 정부가 좀 더 유연한 대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최룡해 총정치국장이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 및 방류를 통해 꾸준히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점도 남북 간 극한 대립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 더 나아가 다자 대화에 합류하기 위한 매개로 남북관계를 활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정세의 틀 속에서 북한의 자체 변화를 유인할 모양새를 갖추어 한다는 지적이다.

☎ 통합콜센터 1544-3412

생활을 바꾸는 작은 기적 문화이용권

영화관에서도

전시장에서도

서점에서도

공연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문화이용권으로 착한 문화생활 하세요!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공연·전시·영화관람·도서구입 등 문화로 행복을 누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복권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이동수당,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문화카드 선착순 발급(연간 5만원) (기부) 기부금 카드 1매 (추가) 청소년(만 10세~19세) (추가)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발급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www.문화이용권.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콜센터 1544-3412 문화·여행·스포츠관광 이용권 문의도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우리 자동차업계의 윤활유(방청유 · 세척유 · 절삭유)는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자동차업계 생산 현장에서는 금속의 절삭 및 연삭 가공 시 윤활작용을 하는 **절삭유**, **연삭유** 등의 금속가공유에서부터 제품의 녹 방지를 위한 **방청유**와 다른 윤활유의 제거를 위한 **세척제**에 이르기까지 윤활 목적과 대상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유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 산업’, ‘녹색 산업’을 외치며 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많은 협력사들이 **유독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트로스아민,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짧은사슬염화파라핀, 포름알데히드, 알킬페놀, 아질산나트륨 등이 그것입니다. 모두 발암성이 상당히 강한 독성 물질들로 유럽 등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을 금지**했으며 국내에서도 2007년 KS규격 제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온 것들입니다. 내분비계 교란 작용을 일으키거나 천식, 발작, 경련, 의식불명 상태 및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물질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산업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의 차원을 넘어 **무공해, 친환경, 인간중심**으로 그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건강 유해물질, 환경 규제물질을 강력히 제한하면서 새로운 기술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금도 **유독한 발암성의 화학약품**을 마셔가며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에 고통 받으며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노동 환경의 열악함은 곧 기업 경쟁력 약화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작업환경과 근로여건을 살펴봐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당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소모성유류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자동차부품협력사들의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의 목적도 있지만, 세계 최고의 수용성 방청유 및 세척제를 공급함으로써 협력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이기 이를 적극 수용하여 회사의 원가절감은 물론 제품의 질과 근로자 건강과 안전까지 시급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당 연구소는 그러한 지원 사업을 위해 철저히 분석하고 따져서 유류제조업체를 선정합니다.

방청유와 세척제의 품질은 세계 최고 정상의 제품이며, 염소를 비롯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의 **4대 중금속** 함유 여부까지도 각각도로 테스트합니다.

또한 상응의 지원 사업이 되기 위해 자동차부품협력사들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유류를 조사 및 분석하여 자문을 해 주고, 많은 문제점들과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의 유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금을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혁신, 나아가 근로 작업 환경으로의 개선까지 완벽히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

자동차인정마크 안내

우리 자동차업계도 이제부터는 **자동차인정 마크** 사용을..



우리 자동차업계의 생산 및 시험용 측정장비 검교정검사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검교정검사의 교정기관이 현재 200개가 넘었다. 그야말로 교정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난립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과도한 교정기관 수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겼고 이 과도한 경쟁은 정부에서 공시한 국가표준수수료표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할인으로 이어졌다. 소비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검교정검사를 받게 되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할인된 수수료만큼 교정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수백 개 교정기관 난립은 성적서의 남발 즉 콜라스(KOLAS) 마크가 찍힌 성적서(이하 KOLAS성적서)로 이어져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그에 당달아 일부 심사원들은 교정의 질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KOLAS성적서를 강요했고, KOLAS성적서가 아니면 심사 통과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사의 품질 담당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교정기관에 KOLAS 마크가 찍힌 성적서만을 요구해 왔다. 각 업체들의 자체 성적서 유도 등 많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한가지만을 고집함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기업경쟁력 저하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듯 KOLAS성적서만 요구하는 상황이 되자 교정기관들은 교정의 질은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하여 인정분야 늘리기에만 치중해 왔다. 그러한 교정기관들 중, 심한 경우 검사는 하지 않고 검사필증만 부착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각없는 일부 심사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KOLAS성적서만 의존하다보니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 등 검교정 방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심사원들은 성적서가 어떤 항목을,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어떠한 절차와 지침에 따라 검사를 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성적서에 KOLAS 마크를 찍었느냐 아니냐는 것만 따지고 있으니 과연 무엇을 심사하리 간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아직까지도 KOLAS 마크 찍은 것만 성적서인 줄 아는, 성적서에 마크만을 따지고 장비에 대한 지식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일부 업체의 검교정 담당자들 뿐 아니라 심사원들까지도 KOLAS 마크가 찍히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성적서는 국제인증마크(ISO-ILAC) 성적서, 한국표준과학 연구원(KRIS) 성적서 기타 세계적인 각 기업체의 성적서 등 많은 성적서가 있으며 모든 성적서는 세계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ISO 규정에 따라 소급성유지 등 제대로 된 요건만 구비하면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KOLAS성적서 또한 그렇게 발행되는 많은 성적서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수백 개 교정기관들의 난립과 KOLAS성적서 남발로 KOLAS성적서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당 연구소는 지난 2004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및 자동차부품 산업진흥재단(KAP)과 함께 자동차부품협력사에 대한 불이의 방지 및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부품협력사 검교정검사 관리를 위해 국가교정기관들에 대한 검증에 한 바 있다.

2013년 현재에도 신청하는 국가교정기관에 한해 검증을 통해 우리 자동차업계에 통용하는 자동차 KMIR 마크가 찍힌 성적서(이하 KMIR성적서) 사용 인정 및 지정을 하고 있다. 당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인정서를 교정기관에 수여하여 그에 따라 자동차 KMIR(우측상부 참조)마크를 성적서에 공히 사용토록 한 것이다.

당 연구소에서는 위와 같은 자동차 KMIR성적서와 관련하여 까다로운 절차와 다각도의 검증을 통해 교정기관을 선정할 후 인정 마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당 연구소 실사팀이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교정시스템을 비롯한 교정관리현황 등을 평가하여 우리 자동차업계 통용 교정업체를 지정한다.

한편, 검교정검사 시 협력사의 인적, 기술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당 연구소 직원이 직접 검교정검사 현장에 수시 파견되어 관찰, 감리 시행도 하고 있다. 검교정검사 후, 검사기록서(Law-Data) 전체 복사본을 제출받으며 사후 심사 또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KMIR성적서의 사용은 앞서 언급한 교정기관 남발로 무의미해진 KOLAS 성적서 사용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동차 KMIR 인정 마크를 통해 등록된 교정기관의 수수료를 관리하여 수수료 할인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는 KOLAS성적서의 폐단을 시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검교정검사 및 성적서 발행을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우리 협력사들이 좋은 품질의 검교정을 받아 제품 품질향상과 기업경쟁력향상에 일익이 되도록 당 연구소가 지속적인 활약을 할 것이다.

협력사 권장수수료-홈페이지참조
(한국계량측정협회수수료표 발췌)

구분	구분명	단위	단가	비고
1. 자동차 부품	1.1 엔진 부품	개	1,500	
	1.2 변속기 부품	개	2,000	
	1.3 브레이크 부품	개	1,000	
	1.4 서스펜션 부품	개	1,000	
	1.5 스테어링 부품	개	1,000	
	1.6 엔진 오일	리터	1,000	
	1.7 엔진 필터	개	1,000	
	1.8 변속기 오일	리터	1,000	
	1.9 변속기 필터	개	1,000	
	1.10 브레이크 오일	리터	1,000	
2. 자동차 부품	2.1 엔진 부품	개	1,500	
	2.2 변속기 부품	개	2,000	
	2.3 브레이크 부품	개	1,000	
	2.4 서스펜션 부품	개	1,000	
	2.5 스테어링 부품	개	1,000	
	2.6 엔진 오일	리터	1,000	
	2.7 엔진 필터	개	1,000	
	2.8 변속기 오일	리터	1,000	
	2.9 변속기 필터	개	1,000	
	2.10 브레이크 오일	리터	1,000	

지식백과

달리는 전천후 집무실, '방탄차'

2011년 5월 유럽 순방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탄차' 때문에 굴욕을 당한 일이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 주재 미국 대사관을 나오던 중 차량이 출입 통제를 경사턱에 걸린 것이다. 외신들은 '오바마의 굴욕'이라고 이 해프닝을 소개했다. 이때 주목받은 게 바로 미국 대통령의 전용차량이자 방탄차인 제너럴 모터스(GM)의 '캐딜락 윈'이다. 육중한 외관 탓에 '야수'(Beast)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방탄차는 수류탄과 로켓포, 대전차 지뢰와 화생방 가스 등 외부 공격을 견뎌낸다. 실내엔 최첨단 설비를 갖춘 '달리는 백악관'으로도 불린다.

방탄차의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테러 위협이 늘면서 국가 원수는 물론 기업총수와 유명 연예인들이 최첨단의 방탄차를 찾고 있다. 방탄차를 제작하는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굳이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 왕실의 결혼식이나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 등 세계적 이목이 쏠린 순간,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등장했을 때의 브랜드 홍보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수익 원을 호가하는 방탄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유다. 특히 요즘에는 방탄차의 수요층도 다양해지고 있어 방탄차 전문 제작업체와 손잡고 중소형 차량에도 방탄기능을 적용하는 추세다.

방탄차는 총알이나 로켓포, 지뢰 등으로부터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최근엔 두께 수 십㎝의 특수 강화유리와 강도는 높이도 두께는 줄인 특수강판, 외부 충격을 받아 찢겨진 상태에서도 맹렬한 속도로 수십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타이어 등 민간 기업도 성능을 가진 최첨단의 부품들이 장착되고 있다. 보통 국가원수의 방탄차량은 그 재원과 가격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된 제원이나 가격을 통해 특정 부품이나 부위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방탄차를 이용한 국가원수는 독일의 히틀러로 알려져 있다. 실업자 구제와 경제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적극 육성했던 아돌프 히틀러는 한편으로 자동차광이기도 했다. 그는 1933년 메르세데스-벤츠 770시리즈 가운데 출력을 높인 770K 모델을 즐겨 탔다. 최고 230마력 엔진에 최고 시속 160㎞를 자랑했으며 40㎞ 두께의 방탄유리와 철관 덮개를 씌운 예비용 타이어가 차량 측면에 달렸다.

방탄차 전문 제작업체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가장 처음 이용했다. 루스벨트 대통령



은 1939년 12월 백골공의 저격을 받은 후 방탄 리무진 링컨 컨버터블을 탔다. 12기통 엔진에 24㎞ 두께의 방탄유리, 방탄 타이어·경기관총 등이 장착되면서 무게가 무려 4톤에 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탄차는 앞서 언급한대로 '야수' 또는 오바마와 오도모빌을 합성한 '오바모빌'(Obamobile)로도 불린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바뀌면 기존 모델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전용차량, 즉 방탄차량을 새롭게 선보인다.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4년형 캐딜락 DTS를 타고 오바모빌은 이를 개량한 모델이다.

차체는 특수강·알루미늄·티탄·세라믹 등으로 구성됐다. 75㎜ 두께의 운전석 차장판이 유일하게 8㎝가량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운전석엔 통신장비를 갖춘 대시보드와 GPS 추적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운전은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배대량 요원이 맡는다. 뒷좌석에는 오바마 대통령만이 작동할 수 있는 전용유리와 경호원 호출 기능을 갖춘 버튼이 있다. 차 하부는 지뢰 등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5인치 두께의 강화금속으로 제작됐다. 연료탱크는 특수 제작한 금속으로 둘러싸여 총탄의 충격에도 폭발하지 않게 설계됐다.

7명이 앉을 수 있는 실내엔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노트북·위성전화·부동형 및 국방부와의 핫라인이 가능한 전화, 대통령이 다쳤을 경우를 대비한 수혈용 혈액, 화생방 테러에 대비한 산소 공급 시스템과 진화장치가 구비돼 있다. 도어의 두께는 20㎝ 이상으로 보일 757 조종석 문과 같다. 대전차 지뢰에도 견딜 수 있는 타이어는 펑크가 나도 한동안 달릴 수 있도록 케블라라는 강력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졌으며, 4개 모두 펑크가 나더라도 내장된 스틸 휠로 수십㎞를 달릴 수 있다. 전조등이 파손될

경우엔 범퍼에 부착된 야간 투시 카메라를 이용해 달릴 수 있다. 3톤을 넘는 무게 탓에 연비는 1ℓ 당 3.3㎞에 불과하고 최고 속도도 94~97㎞에 그친다. 이 차는 25대만 제작됐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유럽의 방탄차량은 1980년대 들어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방탄차를 생산한 벤츠는 1928년 '니르부르크 460(W08)'를 시작으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여러 국가원수들이 이용하는 'S600 풀란 가드(Guard·방탄 차량)'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사용하는 '풀만'(Pullman)이라는 용어는 원래 럭셔리한 열차의 침대칸을 뜻하는 단어로 1920년 초반부터 운전석과 뒷좌석이 격벽으로 분리돼 공간이 넓고 안락한 고급 리무진을 의미한다.

2007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으로 향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 당시 이용하기도 한 S600 풀란 가드는 '벤츠 S600L'을 기초로 제작한 벤츠 가드 시리즈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총탄은 물론 로켓포까지 모두 견딜 수 있는 최고성능(B7·유럽기준)을 자랑한다. 이 차량은 S600L에 비해 1,150㎞가 더 늘어난 6,356㎞로 배기량 5,513cc와 517마력, V12 바이터보 엔진을 장착했다. 성능도 뛰어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걸리는 시간이 4.5초에 불과하다.

BMW의 '시큐리티' 시리즈는 최고시속이 210㎞에 달하고 방탄 성능은 GM이나 벤츠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밖에 아우디의 A8, 롤스로이스의 아도드, 폭스바겐 페이톤 W12, 재규어의 울루 XJ 센티널, 마이바흐 가드, 일본은 닛산 로얄 등도 자국의 국가원수나 유력인사를 위한 방탄차를 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미국과 유럽 차량을 이용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방탄차는 1956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GM의 캐딜락 '프리트우드 60 리무진'이었다. 이 모델은 830대만 한정 생산됐고 7,390cc의 높은 배기량을 갖췄다. 윤보선 전 대통령이 이 차량을 이어받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156대만 한정 생산된 리무진 프리트우드 68을 방탄차로 개조해 사용했다.

송영진 기자

생활상식

식품첨가물의 위험성-2편-



생각보다 많이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한눈에 봐도 식품첨가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식품첨가물을 섭취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이다. 식품을 섭취할 때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읽을뿐더러, 실제로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이 성분표에 전부 다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로운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점심때 간단하게 비빔국수를 먹었다고 하면 국수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강화제부터 시작해서 고추장에 들어간 방부제, 감미료, 양조용 첨가물을 섭취하게 된다. 비빔국수에 감자전을 곁들였다면 양념으로 들어간 간장에서 방부제, 감미료, 소포제, 양조용첨가물을 더 섭취하게 되고 초간장에 들어간 식초에서도 방부제, 감미료를 섭취하게 된다.

식용유로부터는 추출제를 섭취하게 될 것이다. 입이 텅텅해서 어묵 두부국까지 함께 먹었다면 어묵의 방부제, 감미료, 살균제, 두부의 살균제, 소포제, 강화제, 유화제, 간장의 방부제, 감미료, 소포제, 양조용첨가물까지 섭취할 수밖에 없다. 한 끼의 식사에만 이렇게나 많은 식품첨가물이 도사리고 있다.

아이의 식단은 어떻게? 오늘은 큰마음 먹고 아이가 좋아하는 소시지 볶음을 만들었다. 소시지에는 착색제, 발색제, 살균제, 증점제, 품질개량제가 들어가고 케첩에는 유화제가 들어간다. 식용유도 사용해야 하는데, 식용유에는 어김없이 추출제가 들어간다. 내친김에 아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계맛살 달걀말이까지 식탁에 올랐다. 아이는 맛살에 들어간 방부제와 감미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살균제를 섭취하게 될 것이다. 몸에 좋다는 멸치볶음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멸치볶음에 쓰인 간장에는 방부제, 감미료, 소포제, 양조용첨가물이 들어가고 멸치에는 소포제가 들어간다. 콩나물국까지 끓여 주었지만 콩나물국에 들어간 국간장에도 방부제, 감미료, 소포제, 양조용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것이다.

식품첨가물을 적시하자

이러한 이유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수산물들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더라도 사용되는 장류를 비롯한 양념류를 통해 식품첨가물이 우리 몸속으로 침입하게 된다. 한 끼의 식사를 통해 최소 10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가공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맛을 가진 식품이 등장한다는 건 그만큼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양이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고,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양의 식품첨가물을 섭취하고 있음을 뜻한다. 더군다나 어린이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몸속으로 들어온 유해물질에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내에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법적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업체에서 식품첨가물을 자율적으로 적게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속시원하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믿음직한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부작용을 정확히 적시하고, 장을 배 식품에 대한 구입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조금 비싼 것도 감수하고 조금 덜 먹어도 되니, 그 대신 건강한 재료를 골라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바로 우리의 정부구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장성민 기자

건강상식

넌뛰는 일교차에 면역력도 똑... 감기 조심!



아침저녁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찬바람 솔솔 불어오면 감기 환자도 늘어난다. 감기(感冒)는 한자로 '느릴 감'에 '기운 기'를 쓴다. 인체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적응 과정에서 몸살을 앓는 것이다. 현대인은 냉난방을 세게 가동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감기에 걸리지만, 그중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가을 환절기다. 따뜻한 곳에서 적응했던 몸이 계절의 찬바람을 맞으면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옷 두께가 고민된다면 일단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는 200여개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바이러스의 침투를 예방하는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 없다.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것이지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한다. 독감이나 일반 감기는 인체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감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전두에서 잘 이기면 뇌에 자연치유력과 면역력, 저항력이 강화된다. 감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처방법을 알아보자.

실내가 건조하면 코 막힘, 기침 증상이 심해진다. 실내 습도는 55~65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인체

의 면역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세표질이 없으면 세포가 움직이지 못하는 원리와 같다.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르면 보호기능이 떨어져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나 70도가 넘는 높은 습도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습도가 높으면 균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가습기를 깨끗하게 세척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빨래를 널어두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집안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실내 환경뿐만 아니라 인체의 습도도 중요하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체온에 맞는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면 편도를 자극해 열 감기가 심해지며, 차가운 물은 혈관 수축과 확장을 유도해 증상을 악화시킨다.

코와 목감기 증상 완화에는 더운 연기를 쉼은 훈증(熏蒸)이 좋다. 물이나 녹차를 끓여 김을 틀어마시면 코 막힘이 풀리고 기침이 사그라진다.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그릇을 수건으로 감싸고 그 위에 코를 대면 안전하다.

콧물이 흐를 때는 코를 풀기보다는 흡입기로 빼주는 것이 좋다. 잘못 풀면 콧물이 이관을 타고 중이로 넘어가 중이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흡입기가 없다면 한쪽 코를 막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한쪽씩 번갈아가며 킁다.

'감기에는 따뜻한 음식이 좋다', '땀을 빼면 효과가 있다', '소금물을 코로 흡입해 입으로 빼내면 코가 뚫린다' 등 감기 치료를 둘러싼 각종 민간 속설이 있다. 열이 나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을지, 롤 매트에 올려야 할지' 물리서 찜질 때는 부모도 많다.

우선 따뜻한 음식은 감기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술이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혈관 확장으로 땀이 나는데 주관적인 느낌이 좋을지는 몰라도 바이러스 치료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위장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땀을 빼는 건 적당히 해야 한다. 열이 나는 아이가 오한에 시달린다면 이불을 덮어 땀이 나도록 한다. 땀은 몸의 체온을 내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액체가 증발할 때 발생하는 기화열은 몸을 식히는 데 도움을 준다.

단, 어린이의 뇌에 열이 오르면 열성 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머리는 차갑게 해야 한다. 또 땀을 심하게 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므로 뜨거운 목욕은 자제해야 한다. 열이 38.5도를 넘으면 해열제를 복용하고, 기침이 심하면 폐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료 받아야 한다.

비염 환자들이 자주 시행하는 '코로 물 흡입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막힌 코를 뚫어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중이염에 걸릴 수 있다. 코감기에 걸리면 점막이 붓고 점액이 늘어나 구멍이 막히게 된다. 억지로 물을 흡입하다가 유스타키오관을 건드리게 되면 중이염이 발병한다.

감기 극복을 위해서는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입안에는 항상 구이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이 활발해진다. 또한 노약자들은 조식으로 5~10분정도 견뎌야함을 시키도록 권장한다. 즉, 마른 수건으로 배와 가슴, 등을 때 밀듯이 닦아주는 것으로 감기를 항상 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기 기자

착한보험 우체국보험

내일의 행복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우체국보험을
만나고부터...



우체국금융모델
수지

여행정보

정음, 목정호 구절초테마공원



구름 한 점 없는 10월의 높고 푸른 하늘은 어디든 떠나고픈 설렘을 준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 듯, 10월엔 유난히 축제가 많다. 전북 정음시도 10월이면 축제의 도시가 된다. 10월 6일에 시작되는 정음구절초축제, 26일 전후로 시작되는 정음사문화제, 정음시민의 날, 정음평생학습축제, 정음전국민속씨름대회 등이 관광객을 남반에 쫓게 한다.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열리는 정음구절초축제는 200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7회를 맞이했다. 2006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열리고 있다. 축제 무대는 정음시 시내면에 자리한 옥정호구절초테마공원이다.

옥정호구절초테마공원은 멀리서도 구절초 군락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진한 구절초 향기로 가득하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면 서도 하얀 봉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꽃밭이 넓다. 22만㎡ 규모를 자랑하는 옥정호구절초테마공원에서 9만㎡에 달하는 숲속에 구절초가 피었다. 옥정호반의 작은 봉우리가 구절초 꽃동산으로 변신한 것이다.

꽃밭 사이에 산책로가 있어 꽃향기에 취해 쉬엄쉬엄 걷기도 좋다. 길 중간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멈춰 서는 곳은 DJ 박스다. 방송국 못지않은 장비와 갖춰진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하는 명소다.

공원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장소가 있다. 공원 곳곳에 놓인 빨간 우체통이다. 축제장에 마련된 구절초 엽서를 작성해 보낼 수 있다. 손으로 꼭꼭 눌러 쓴 엽서를 정음시에서 수거해 보내 준다고. 휴대용 문자와 인터넷 메일로 소식을 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엽서 쓰기는 왠지 낯설다. 그 낯섬을 덜어주기 위해 엽서에는 구절초를 테마로 한 시민들의 시가 있다. 사람들은 그 시를 따라 쓰기도, 그저 주소만 적어 보내기도 한다. 엽서에는 구절초 꽃밭의 추억이 고스란히 옮겨진다.

향긋한 구절초 차를 마시며 따뜻한 구절초 물에 발 담그고 쉴 수 있는 구절초 향기 족욕 체험도 준비된다. 함께 여행하는 친구와 꽃을 바라보며 앉아 정담을 나누보자.

옥정호구절초테마공원에는 아름다운 자전거 길이 있다. 광장에서 옥정호반을 따라 이어지는 옛 도로다. 길은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호수와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

영화·드라마 촬영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만나면 잠시 멈춰 서자. 표지판 앞에는 호수를 건너는 능교가 있다. 능교는 드라마 〈전우〉의 촬영지다. 이 다리에서 촬영된 장면은 난간에 전시된 스틸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제장에는 코스모스와 억새도 만발했다. 정음시에서 꽃이 피는 시기를 조절해 심은 코스모스는 구절초와 더불어 장관을 이룬다. 공원 언덕 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벚 그림도 일품이다. 벚 그림은 품종이 다른 벚을 심어 완성한 거대한 작품이다. 올해는 첫 차례 태풍

이 지나는 바람에 선명한 그림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작품이다.

숲속 아래 가득 핀 구절초는 건물과 길에도 피었다. 중앙광장과 산책로, 나무 의자 등에 대형 구절초 꽃 그림이 그려졌다. 이 그림은 축제 전후로 공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만개한 구절초 군락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준다.

길을 걷다 5월 단오 때는 다섯 마디가, 9월에는 아홉 마디가 자라 구절초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구절초 꽃 이야기, 관절과 피부염에 좋다는 구절초의 약효 이야기 등이 쓰인 안내판을 만나면 꼼꼼히 살펴보자. 구절초 꽃밭 한가운데서 식물의 효능을 아는 특별함을 누릴 수 있다.

정음구절초축제는 정음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축제 준비와 운영을 돕는 산내민 12개 마을과 정음시 관내 5개 마을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다. 직접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구절초 차를 만들고 음식 준비한다. 그들이 만든 구절초 상품도 접할 수 있다.

구절초를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구절초영농조합법인 '꿈의 향기'에 들러보자. 직접 농사지는 구절초를 잘 말려 구절초 향기 주머니 만들기, 구절초 베개 만들기, 구절초 염색하기 등 다양한 체험 재료로 사용한다.

인지훈 기자



개요 : 가족, 드라마
개봉 : 2013. 10. 02.
출연 : 유아인(강철), 김혜숙(수인), 김정태(상곤), 김성오(환곤), 정유미(수진)
등급 : 15세 관람가

세상이 우리 편인 적 있었나? 부산의 부두 하역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강철이. 안정적인 직장도, 기쁠 수 있는 집안도, 믿음직한 '백'도 없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깡'으로 뚫힌 부산 사나이.

거기에 아픈 엄마까지 책임져야 하는 고달픈 강철, 어느 날 서울에서 여행은 자유로운 성격의 '수지'를 만나고,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은 강철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갈 꿈도 꾸기 시작한다.

하지만 성취 않은 몸으로 동네방네 사고만 치던 엄마 '수이씨'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고, 유일한 친구 '종수'는 사기를 당해 돈 마련이 시급한 강철까지 위협에 빠뜨린다.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엄마와 친구, 자신의 삶까지 잃게 생긴 강철, 부산 뒷골목의 보스 '상곤'은 강철에게 위험한 선택을 제시하는데...

전국 530만 명을 동원한 화제작 〈완득이〉에서 소심한 반항아 '완득' 역을 맡아 캐릭터와 완벽하게 일치한 매력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호평 받았던 유아인, 카리스마와 로맨틱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여심을 사로잡으며 송중기, 김수현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20대 스크린 배우로 자리매김한 유아인이 2년 만의 복귀작 〈강철이〉를 통해 부산 '상남자'로 돌아온다. 거칠지만 속 깊은 부산 사나이로 완벽하게 변신한 유아인은 실제 자신의 토대와 가장 가까운 캐릭터 '강철'을 통해 보다 공감 가고 리얼한 연기를 선보인다. 완벽한 부산 사투리 연기는 물론 외아들 액션, 총격 액션, 카체이싱 등 강도 높은 액션까지 소화한 유아인은 드라마를 이끄는 진한 감성 연기와 역동적인 액션 연기를 넘나드는 남성적인 매력으로 스크린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엄마 '수이' 역을 맡은 독보적 존재감의 여배우 김혜숙과 유아인의母子 호흡은 〈강철이〉만의 농칠 수 없는 관람 포인트. 온갖 병치레로 강철을 힘들게 하지만 천진난만하기 그지없는 '수이' 김혜숙의 반전 매력과 그런 엄마 앞에서만은 한없이 따뜻한 '강철' 유아인의 호흡은 캐릭터의 신선한 매력과 두 배우의 연기력이 더해져 최고의 앙상블을 이룬다. 국민 엄마에서 반전 엄마로 돌아온 김혜숙과의 완벽한 호흡부터 20대 청춘의 생생함이 묻어나는 젊은 매력을 뽐아내는 유아인의 새로운 모습은 〈강철이〉의 든든한 중심축이 되어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드릴 것이다.

김정현 기자



축 제

풍기 인삼축제

기간 : 2013.10.03 (목) ~ 10.09(수) 7일간
장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둔치
주최 : 영주시
주관 : (재) 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풍기인삼농업협동조합, 풍기인삼생산자판매조합, 동강대학교 등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3~9일 풍기읍 남원천 둔지에서 '2013 영주풍기인삼축제'가 개최된다.

행사기간 축제장에 인삼포를 설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인화도 해준다. 인삼주 만들기 체험, 웰빙 인삼요리 전시, 전국 풍기인삼 아가씨 선발대회, 풍기인삼 건강 에어로빅 경연대회, 소백산 인삼가요제 등이 열린다. 행사기간 산지에서 재배해 가공한 인삼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영주 풍기인삼축제는 낮 시간에 관광객을 정조준한다. 경북 영주시는 내달 3~9일 '천년건강! 풍기인삼'을 주제로 풍기를 남원천 일원에서 '2013영주풍기인삼축제'를 연다. 올해는 최초 인삼재배를 기념하는 인삼개심대 교유제 및 풍기인삼 대제, 주세봉군수 행차체험과 길놀이 등을 시작으로 대낮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낮 시간대 축제장에서는 영주대표 희극인 조준경마당놀이와 관광객 노래자랑, 풍기인삼경매 등 참여 체험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풍기인삼의 힘과 효능을 상징하는 우량인삼선발대회, 특공무술공연, 풍기인삼각기 경연, 풍기인삼장사씨름대회, 길거리 씨름대회 등은 축제장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이끈다. 러시아 민속공연, 도립예술단공연도 낮 시간에 연다. 아간공연에서 한발 비껴선 것은 주민 위주의 행사보다 관광객의 편의를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다.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 전원에게 경품권을 배부, 행사참여를 유도한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인삼 관련 제품도 배부한다. 풍기인삼 상단의 옛 복식을 입고 익살스런 연기로 축제장을 누비는 연기자들의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관광객들은 인삼축제의 대표행사인 인삼 개기를 통해 직접 인삼밭에서 인삼을 캐서 구입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인삼요리와 인삼캐티링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도 있다. 설운도, 김용민, 강진, VIXX, 나인뮤지스 등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개막축하공연과 풍기인삼가요제, 대학생치어리더 경연, 7080추억의 남남 콘서트 등은 화려한 야간공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6회째를 맞이한 전국 풍기인삼아가씨선발대회(4일 오후6시)는 인삼여린이선발대회와 함께 열려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장호철 기자

韓國自動車新聞(KOREA MOTOR NEWSPAPER)
發行人:洪明熙/編輯人:洪明熙/印刷人:(株)아이피디/登錄番號:沙上라2011-1
代表番號:1566-9901(案內)/Internet住所:www.kmn.pe.kr/間別:月間,有價紙
住所:釜山廣域市 沙上區 毛羅洞 728-10番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업농업인·2030세대·고령 농업인! 모두가 함께 꿈꾸는 농어업인이 잘사는 나라
푸른 농어촌의 꿈 농지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십니까?

농지은행에서 적합한 보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해 드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있습니다.

농지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농지를 제 가격에 사들여 쌀전업농과 농업법인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농지매입비촉사업**이 있습니다.

더 규모있게 농지를 확대하고 싶으신가요?

농지를 집단화하고 규모화·전문화된 농업인을 육성하여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확보 및 경자유전실현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부채로 어려우신가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임대기간동안 환매를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동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최대 월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영이양직접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아직도 고민중이신가요?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지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이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777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7770)로 문의하시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FA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08 한국자동차신문

주간신문 : 2013년 10월 3일 ~ 10월 9일

(제36호)

한국자동차신문(KMN)은 2011년 8월 10일 설립된 신문사로서, 한국자동차산업시험연구소(KMIR)의 부설기관입니다.

모체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비영리 신문사로, 수익금 전액을 신문간행 및 자동차부품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우리 업계가 하나로 되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현재 국내 5개 완성차 및 8,500여 자동차부품협력사와 종사자 약 80만 명 및 50만명 이상의 자동차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완성차 및 부품협력사의 동향, 자동차 신기술 정보, 대정부 정책 제언 등의 소식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기사는 물론, 생활의 팁, 여행지, 운동정보, 역사이야기 등 다채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자동차신문(KMN)은 우리 자동차업계를 위한 신문입니다. 항상 자동차업계만을 생각하고 자동차업계를 위한 목소리를 내며, 자동차업계를 든든히 지원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알차고 진실한 내용을 신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우리 자동차업계를 발전시키는 큰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업계 소통과 소식 그리고 대외 및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한 우리업계의 한 목소리와 자동차업계 현장의 기술전문기자들을 통한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신문이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신문 (KMN)
KOREA MOTOR NEWSPAPER